월정사 단기출가학교 '리뉴얼' 한다

고령자 · 외국인 · 여성 등
연령 · 계층 전부 세분화
명칭 '출가학교' 로 변화

시대 맞는 체계 구축하고
세대 · 계층 맞춤교육 실시
장기 및 상설 출가 학교도
메뉴얼 제작 위탁교육 추진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참가한 사람들이 삭발염의를 하고 연비를 받고 있다.

2004년 9월 문을 연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일반인이 삭발염의 하고 행자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불교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기출가학교 수료생 중 10%는 실제로 출가 수행자가 돼 출가문화 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불교의 큰 문제로 대두된 출가자 수 감소라는 소나기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도 비켜가지 못했다.

단기출가학교장인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년을 넘어서면서 시대적 변화, 젊은 세대에 공감 받을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물론 그동안 이런 환경을 타개하고자 전통적 행자생활 과정을 축약한 몸으로 하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감성 체험적 요소와 힐링 문화에 부합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정체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교육을 받던 선배들이 간략화 된 출가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냈다. 힘든 교육과정은 실제 출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며, 졸업 후 학교에 대한 애정도 더 생기게 하는데 감성강화교육은 오히려 단기출가학교 분위기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해 조언도 많았다"고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이어 정념 스님은 "그래서 다시 체험중심 교육으로 되돌아갔지만 이제 전반적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니 현대인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이미 기존 단기출가체험 수요의 상당수를 수용했기에 더 이상 학교 인원이 늘지 않아,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올해로 개교 13주년을 맞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출가학교' 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체재로 운영된다. 새롭게 변화한 출가학교는 기존의 단기출가 이외에도 프로그램이 계층 · 연령별로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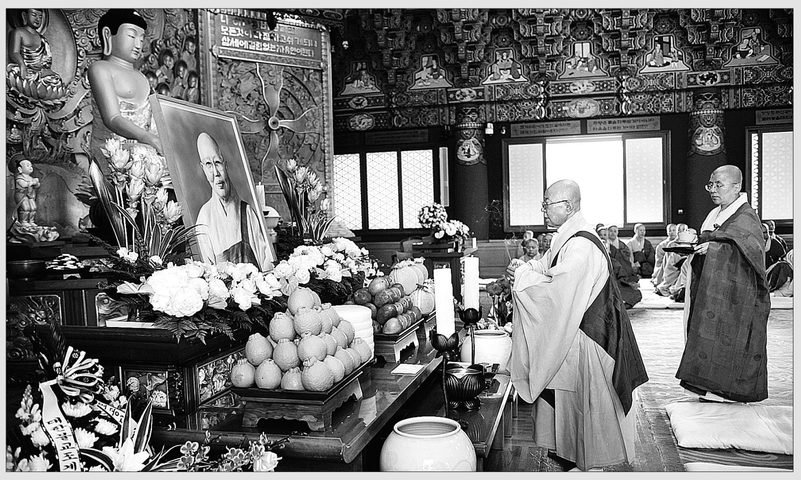
장기간 수행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체험과 힐링에 초점을 맞춘 2박 3일 프로그램부터 △1주일간 출가를 체험해보는 '마음출가학교' △고령자 위주의 3박 4일 출가체험인 '나도 출가' △여성을 위한 출가학교(3박 4일) △외국인 출가학교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또한, 월정사는 정식 출가를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거나 고민하고 있는 재가자를 위해 장기출가학교 및 상설 출가학교도 계획중이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하반기부터 정식 출가자 배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한다. 6개월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과 신심, 발심, 월력, 염불, 기초교리, 수행 등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세히 가르칠 것"이라며 "요즘 전국적으로 행자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붕괴현상이 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행자생활 유지만으로는 한계에 처했음을 수용하고,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향후 월정사가 닦아놓은 노하우로 이런 행자 교육 매뉴얼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행자 위탁 교육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정사는 이 같은 변화에 맞춘 48, 49기 단기출가자를 모집한다. 48기 대상자는 대학생과 일반인 남녀 70명으로 오는 6월 7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수행기간은 7월 1일부터 23일까지다. 또한 49기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일반인 남녀 70명이 대상이며, 오는 12월 12일까지 참가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49기의 수행기간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월정사 출가학교는 모집 안내문을 통해 "단기출가학교가 종합적인 체계와 세밀한 맞춤교육을 위해 '월정사 출가학교' 로 새롭게 거듭났다"면서 "출가학교서 새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선연(善緣)을 맺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대행 스님 영정에 헌향하고 있다.

대행 스님 4주기 "삶 떠난 佛法 없다"

안양 한마음선원서 5일 다례재… 5000여 대중 운집

근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인 대행 스님의 4주기 추모다례재가 5월 5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한마음선원에는 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대행 스님과 평소 인연이 깊었던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과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이필운 안양시장 내외, 이종걸 국회의원 등 인사 등도 참석했다.

다례재는 각령전 일동 삼배 후 헌향. 헌다. 헌화, 조사영반, 큰스님 영상법문, 추모 영상 상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과 이사장 혜수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승단을 대표해 헌향, 헌다, 헌화를 했고, 전국의 신도회장단도 헌화로 추모했다.

특히 이날 다례재에서는 대행 스님의 영상법문이 큰 감동을 선사했다. "불법은 여러분의 삶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는 말이 나올 때 대중들은 대행 스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다.

이런 추모다례재 분위기 속에 주지 혜원 스님도 말을 잇지 못했다. 스님은 "사진으로, 마음으로 항상 계신다. 항상 뵙고 싶지만 오늘은 더욱 뵙고 싶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다례재는 선원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과 추모의식으로 마무리됐다. 다례재 후에는 대중들은 대행 스님 부도탑이 위치한 서산 정까지 참배했다.

한편, 묘공당 대행 스님은 지난 1972년 한마음선원을 설립한 뒤 국내 15개, 해외 10개 지원을 잇따라 세우고, 본지 현대불교신문사와 연구원을 만드는 등 대중포교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12년 5월 22일 세수 86, 법랍 63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록의 계절, '人文불교' 에 빠져봅시다

정평불 · 사찰림硏 등 불교 인문강좌 잇달아 개강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도 다양한 불교계 인문 강좌가 잇달아 문을 연다.

깨달음의 실천을 고민하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강좌는 정의평화불교연대(대표 이도흠, 이하 정평불)의 '눈부처학교' 4기다.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9시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불교계 내외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깨달음을 어떻게 볼 것이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가 강의의 큰 줄기다. 강의는 △1강(5월 12일):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의 실천(이병욱/ 고려대) △2강(5월 19일): 초기불교의 깨달음과 실천(김광수/ 한양여대) △3강(5월 26일): 선의 깨달음에 대한 성찰-부처로서의 삶이 부처이다(변희욱/ 서울대) △4강(6월 2일): 깨달음과 삼독의 지멸(박병기/ 한국교원대) △5강(6월 9일): 깨달음 논쟁 비판을 통한 21세기의 깨달음의 길(이도흠/ 한양대) △6강(6월 16일): 깨달음과 사회적 실천(유승무/ 중앙승가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010)3725-4846

문화를 통해 불교 만나다

불교 건축과 미술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강좌도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2016년 불교문화 강좌' 를 연다.

불교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강좌는 △1강(5월 23일):사찰 건축 속의 사상과 철학(원철 스님/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2강(5월 30일):생각을 담는 그릇, 생활이 비치는 거울-불교건축(홍병화/ 조계종) △3강(6월 13일):도갑사 도선국사비와 17세기 불교 석조 미술(김민규/간송미술관) △4강(6월 20일):불교의 윤회세계, 불교 신앙의 사회적 의미(정각 스님/중앙승가대) △5강(6월 27일) 불교 내부 장엄과 의례-불탑과 불상의 내부 장엄(정각 스님/중앙승가대) 등으로 구성된다. 강좌 수강 신청은 오는 5월 17까지 이메일(mingfung84@buddhism.or.kr)로 접수받는다.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수강료는 무료. (02)2011-1960

식물과 불교, 그리고 삼국유사

불교와 식물, 나무를 탐구하는 이색적인 시민강좌도 열린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서대문 사찰림연구소 전용 강의실에서 열린 시민강좌 '불교와 숲, 그 속에 담긴 이야기' 를 마련한다. 총 6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박희준 대진대 교수(사찰림연구소 탐방단장)가 '경전으로 만나는 식물이야기' 를, 이경남 명상치유연구소 원장이 '명상, 절 숲으로 가다' 를, 임휘룡 사찰림연구소 전문위원이 '우리 절집의 나무들' 을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참가비는 6만원. (010)7233-6716

일연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나탄 원효의 기록을 찾아가는 강좌도 눈길을 끈다. 서울 사간동 법련사는 오는 5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12시 30분 2층 교육문화관에서 제2차 불일인문강좌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를 개최한다.

총 12강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삼국유사 속에 나타난 원효의 기록을 촘촘히 따라가며 원효가 신라의 붓다이자 세계적 석학이자 철학자였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사는 정진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교수가 맡는다. 수강료는 15만원. (02)733-5322

신성민 기자

조계종 6월 21일 임시종회 개원

의장단연석회의서 확정…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관심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두고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6월 21일 개원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 위원장은 5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206차 임시종회를 6월 21일 열기로 했다. 의안접수는 6월 14일까지며 종책질의는 16일 마감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선거제도혁신특위를 구성해 '염화미소법' 을 성안한 바 있다. 당초 3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대중공사에서 여론을 물었다. 대중공사에서는 '염화미소법' 보다 직선제 도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6월 임시회에서는 선거법 개정보다 선출제도 혁신을 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6월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월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골자 종헌개정안과 교구본사주지의 연임을 1회로 한정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5월 18일 서울 불광사에서 전체 대중공사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종정 설제 정광

원로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성암** 총무부원장 **보원**

상벌위원장 일륜

원로위원 **혜초 수진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무상 자광 법원 현수 지광 향봉 수월 자성 일륜 무공 성죽 마명 청암

선거관리 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현수 무공 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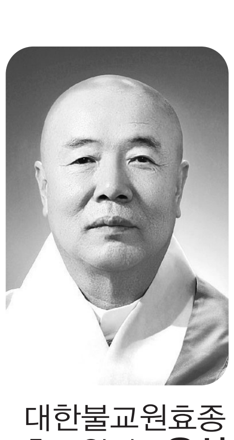
종학원장 옥천 법규원장 무상 고시원장 자광 포교원장 선운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범일 의전실장 석해

부산교구원장 석불 대구교구원장 서응 울산교구원장 지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전북교구원장 경오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경북북부원장 성죽
제주교구원장 법원 강원교구원장 성암

교육부장 도선 문화부장 대호 규정부장 상묵 기획부장 법민
사회부장 해인 포교부장 성우 복지부장 원해 의전부장 무해
사회국장 보문 규정국장 남주 복지국장 법선 사무국장 향적
조사국장 최석주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봉축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마음가짐 하나로 내가 달라지고 사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공을 올린다는 것은 나의 현재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광명 빛으로
오신 부처님의 위대함을 돌이켜 되새기며
우리 마음의 밝음을 믿고 오늘부터 바로 대 자유의
길을 걸어 갑시다. 그리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품안에서 업겁을 녹이고
극락정토 인연되어 함께 성불합시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주소 : 경주시 충현로 3길 4-1 TEL : 054)743-0700